

TV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조선전기 갑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을 중심으로 -

김 은 정* · 조 미 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Helmet and Armor in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Appearing in TV Historical Drama

- Focusing on the *Tear of Dragon* and *King Sejong* -

Eun-Jung Kim* · Mi-Suk Ch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12, 심사(수정)일: 2010. 12. 24, 게재확정일: 2010. 12. 27)

ABSTRACT

The study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 of helmet and armor reflecting *Joseon* Dynasty by focusing on the helmet and armor appearing in dramas, the *Tear of Dragon* and *King Sejong*, whose common point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early *Joseon* Dynasty, among the historical dramas, which are manufactured on the basis of historical person or age. First, the helmet and armor appearing in historical drama was reproduced on the basis of historical record depending on ag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elmet was classified into *cheomju* and *wonju* and armor was classified into *chalgap*, *swaejagap*, *gyeongbeongap*, *dujeonggap* and *dudumigap*. In drama, the *Tear of Dragon* and *King Sejong*, for helmet, *cheomju* and *wonju* were used and for armor, *chalgap*, *dujeonggap* and *dudumigap*, whose type and manufacture method were similar to that of historical record, were reproduced. Second, the helmet and armor appearing in historical drama searched for function. In drama, the *Tear of Dragon*, rather than heavy iron, plastic and textile were used and the metal scale inside armor was removed. In drama, *King Sejong*, the weight of armor was decreased by removing the metal scale inside armor and easy wearing was secured by using velcro. Third, the helmet and armor appearing in historical drama expressed various dramatic interpretations. In drama, the *Tear of Dragon*, the same color as that of armor was adopted for helmet to provide stable and unified feeling. Visually splendid display was added to armor by matching powerful prime color and glossy metal. In drama, *King Sejong*, modern sense was added to helmet and armor by actively using pastel color reflecting modern fashion.

Key words: helmet and armor(갑주), historical drama(사극 드라마), *Tear of Dragon*(용의 눈물),
King Sejong(대왕세종)

I. 머리말

TV 드라마는 매스 미디어의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TV 드라마에서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그 소재가 되는 역사적 사실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언어, 생활풍습, 건축, 복식, 머리모양 등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전달하게 된다.¹⁾ 따라서 역사적 인물이나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되는 사극 드라마는 민족의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토 확장과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로 중국과 일본과의 전쟁은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전투도 빈번하였다. 따라서 사극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여 재현되는 스펙터클한 대규모 전쟁장면은 극 중 스토리 전개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의 중심에 있게 된다. 이때 사극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전쟁 장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중요한 사극의상이 갑주(甲冑), 즉 갑옷과 투구이다.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하는 갑주는 전쟁 시 착용했던 군복으로서 당 시대의 무사들의 방어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 사극 드라마에 비춰지는 갑주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했던 신체보호 기능보다는 역동적인 이미지와 화려함을 배가시켜 활동적, 심미적 기능에 강조를 하는 추세이다 보니 고중에 입각한 전통적인 갑주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제작된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전통복식은 자국 문화의 독자성을 내포시키면서도 주제에 따른 설정인물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므로 복합적인 재현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동안의 갑주 연구는 군사학, 사학, 복식사학계의 관심 속에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극 드라마에 착용되었던 갑주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다른 연구 분야에 반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채 고구려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사극 드라마에 관한 연구²⁾가 2편 보고되었을 뿐 매우 미비한 실

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사극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의상 컨셉트에 의해 표현된 갑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지닌 갑주의 특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시대 갑주는 다른 시대에 비해 비교적 많은 문헌자료와 유물자료가 현전(現傳)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 실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었던 갑주를 중심으로 보다 다각적인 시각을 지닌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동일한 방송사인 KBS에서 제작되었고, 극 중 시대적 배경이 조선전기라는 공통점을 지닌 TV 사극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착용했던 갑주를 통해 전통 갑주가 현대에 들어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대가 반영된 조선전기 갑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유물자료, 선행연구의 고찰, 방송사에서 구입한 DVD의 자료 분석과 KBS 사극의상실에 보관중인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 착용되었던 갑주의 실물조사, 방송사 홈페이지 및 드라마 관련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조선시대 갑주의 이론적 배경

1. 갑주의 구성

갑주(甲冑)는 옛 무사들이 적의 궁시(弓矢)나 창검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호신장비³⁾로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신체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구성된다.



투구는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인 감투를 기준으로 위쪽의 정수리 장식, 아래쪽의 뒷목과 귀를 덮어 보호하는 부분인 드림으로 나뉘며, 여기에 햇빛을 가리는 차양과 이마를 보호하는 이마 가리개 등이⁴⁾ 부착되기도 한다.

갑옷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갑찰(甲札)을 달고, 갑찰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심지(心地)를 대는 등 각종 재료들을 여러 겹으로 겹쳤기 때문에 갑옷은

<표 1> 갑주의 구성

구분	부위명칭	설명
투구	갑투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전면 하단에 차양과 이마가리개 등을 부착
	정수리 장식	갑투의 정수리에 긴 관 형태의 간주를 꿰고 삼지창이나 불꽃문양, 상모 등의 장식
	드림	갑투의 하단에 옆과 뒤쪽에 달린 것으로 귀와 볼, 뒷목을 보호
갑옷	갑신(甲身)	신체의 몸통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갑(甲), 갑신(甲身), 갑의(甲衣) 등의 명칭으로 불림
	갑군(甲裙)	허리 아래를 보호하는 부분으로 좌우 두 장이 한 허리띠에 연결된 형태
	피박(披膊)	어깨와 윗팔을 보호하는 갑옷의 부속구
	호액(護腋)	겨드랑이 부분을 보호하는 갑옷의 부속구
	비갑(臂甲)	팔꿈치 아래팔을 보호하는 갑옷의 부속구
	골미(鵬尾)	성기(性器)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의 부속구

<표 2> 세종실록에 기록된 갑주

갑주	명칭	기록내용	
투구	籬冑	쇠로써 만드는데, 들레[籬]가 있는 것은 침주라 한다.	
	圓冑	쇠로써 만드는데, 들레[籬]가 없는 것은 원주라 한다.	
			
갑옷	冑		
	甲	水銀甲	쇠로써 미늘[札]을 만들고, 수은으로써 끼었고, 가죽을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은 수은갑이라 한다.
		柳葉甲	쇠로써 미늘[札]을 만들고, 그을린 녹피를 사용하여 엮어 만들고, 검은 칠을 한 것은 유엽갑이라 한다.
		皮甲	생저피로써 미늘을 만들고, 그을린 녹피를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은 피갑이라 한다.
		紙甲	종이를 접어서 미늘을 만들고, 녹피로써 엮어 만들어, 검은 칠을 한 것은 지갑이라 한다.
	鎖子甲	철사로써 작은 고리[小環]를 만들어 서로 꿰는 것은 쇠자갑이라 한다.	
鏡幡甲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은 경번갑이라 한다.		
			

출처: 世宗實錄 卷133 五禮 軍禮 序禮 兵器 5集 357面, 朝鮮王朝實錄 5: 世宗實錄4, 1970, p. 357.

상당한 두께와 무게를 갖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갑옷의 구성을 결정짓는다. 즉 두껍기 때문에 앞섰을 여며 입을 수 없어 합입(合衽) 형태를 이루고, 활동의 편리를 위해 옆트임을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물은 무가 없다. 또한 동작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전체가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신체부위별로 분리하는 편이 효과적이며, 트임이나 분리로 인해 생기는

노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갑옷의 부속구들이 발생⁵⁾하기도 한다. 이러한 갑주의 구성을 제시하면 <표 1>⁶⁾과 같다.

2. 문헌자료

어느 연구대상이든지 사적 연구를 진행할 때 역사

적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⁷⁾이다. 문헌(文獻)이란 문물제도의 진거(典據)가 되는 기록 또는 학문 연구에 참고자료가 되는 문서를 의미하며,⁸⁾ 이러한 문헌자료를 통해 갑주에 대한 당시의 유형인식이나 용어사용, 재질과 제작방법, 혹은 사용법 등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를 살필 수⁹⁾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세종시대의 행적을 기록한 사료인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조선시대 오례의 예법과 절차를 기록한 세종대에서 성종대에 완성된 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조선전기 갑주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먼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록을 통해 당시 갑주의 면모를 알아보면 <표 2>¹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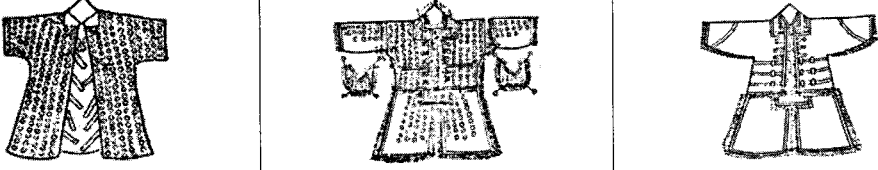
제시된 <표 2>에서 조선전기 투구는 둘레의 유무에 따라 첨주와 원주로 분류되었고, 갑옷은 소재와 제작방법에 따라 수은갑, 유엽갑, 피갑, 지갑, 쇠자갑, 경번갑으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圖)에 제시되어 있는 투구인 첨주와 원주를 비롯하여 갑과 경번갑, 쇠자갑을 통해 당시 갑주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은갑과 유엽갑, 피갑, 지갑을 각각 그리지 않고 하나의 갑으로 표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표현은 수은갑과 유엽갑, 피갑, 지갑을 하나의 갑옷 형태로 보았고, 경번갑과 쇠자갑은 갑과는 다른 형태의 갑옷으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수은갑, 유엽갑은 철로 미늘을 만들고 가죽으로 엮은 것이고, 피갑은 생돼지가죽으로 미늘을 만들고 사슴가죽으로 엮어 연결한 것이며, 지갑은 종이로 미늘을 만들고 사슴가죽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비록 소재에서 차이는 보이나 완성된 형태는 찰갑(札甲)에 해당되기 때문에 4종류의 갑옷을 하나의 갑으로 그려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종류의 갑옷이 등장하는데 두정갑과 두두미갑으로 <표 3>¹¹⁾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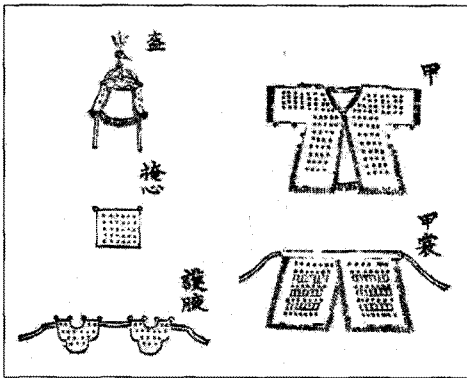
제시된 <표 3>에서 수은갑이나 유엽갑, 피갑, 지갑 등의 경우 철이나 가죽 등의 방호재 미늘이 걸린 반

<표 3>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갑주

갑주	명칭	기록내용
투구	簷冑	쇠로써 만드는데, 둘레[簷]가 있는 것은 첨주라 한다.
	圓冑	쇠로써 만드는데, 둘레[簷]가 없는 것은 원주라 한다.
		
		冑
갑옷	頭釘甲	두정갑(頭釘甲)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색깔이 있다. 그 하나는 푸른 무명으로 옷을 만들고 쇠미늘을 엮어서 바탕을 만든 뒤에 철두정을 그 위에 별처럼 벌여 못질한 것이다.
	黃銅頭釘甲	또 하나는 붉은 비단으로 상의를 만들고 안에는 연록피를 사용하였으며 붉고 넓은 실로 짠 띠가 있다. 누런 구리 쇠 못으로 못질하였으며 붉고 넓은 실로 짠 띠가 있다.
	頭頭味甲	두두미갑(頭頭味甲)이 있는데 두 가지 빛이 있다. 그 하나는 푸른 비단으로 옷을 만들고 안에는 연록피를 사용하며, 백은(白銀)·황동(黃銅)의 두 가지 빛으로 된 두정을 서로 교착(交錯)시켜 못질을 하며 오색으로 섞어 짠 띠가 있다. 그 다른 하나는 제도는 같으나 옷을 붉은 비단으로 만들고 띠는 붉고 넓은 실로 짠 띠를 사용한다.
		
		頭釘甲 黃銅頭釘甲 頭頭味甲

출처: 國朝五禮儀 卷4 軍禮 序禮 兵器 圖說, 國朝五禮儀, 1979, p. 93.

면 두정갑과 두두미갑은 겉은 직물로 하되 안쪽에 철 미늘이나 가죽 미늘로 방호재를 만들고 두정을 사용하여 고정시킴으로써 겉에서 보았을 때 미늘은 보이지 않고 두정만이 보이게 한 갑옷임을 알 수 있다. 도(圖)에 제시되어 있는 두정갑은 2가지로 하나는 두정갑이고 다른 하나는 황동두정갑이다. 두정갑은 반비(半臂)의 포형(袍形) 갑옷으로 앞 중앙에서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황동두정갑은 허리까지 오는 갑신(甲身)과 대퇴부를 보호하는 갑군(甲裙), 성기를 보호하기 위한 골미(鵝尾)가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부분을 보호하는 호액(護腋)이 있는¹²⁾ 갑옷이다. 깃은 방령이며 짧은 소매에는 별도의 소매를 달아 부착하였다. 두두미갑은 황동두정갑과 형태는 유사하나 소매가 분리되지 않는다. 도(圖)에서는 두정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기록을 통해 옷의 안쪽에 가죽 미늘을 달고 백은(白銀)과 황동(黃銅)으로 된 두정으로 고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馬藝冠服圖, 武藝圖譜通志, 1970, p. 604.

황동두정갑과 두두미갑은 제시된 〈그림 1〉¹³⁾과 같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마예관복도(馬藝冠服圖)에서 보이는 갑옷의 구성과 유사함을 볼 때 유상형(襦裳形) 갑옷¹⁴⁾으로 생각된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 골미(鵝尾)는 엄심(掩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조선 전시대를 거쳐 엄심(掩心) 또는 엄심갑(掩心甲)은 사졸들이 착용한 종이와 포(布)로 만든 갑옷이었고 머리에는 엄두(掩頭)를 쓰고 몸에는 엄심(掩心)을 입고 허리에 요대(腰帶)를 맨 차림이었으므로 갑옷의 부속구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갑옷 종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 엄심(掩心)은 '남성의 중심을 덮는다'는 의미를 그대로 한자로 번역한 말이라 생각된다.¹⁵⁾

3. 무석인(武石人) 자료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전하지 않는 현시점에서 무석인(武石人)의 갑주착용모습을 통해 유물 부재에 의한 한계점을 보완하기로 한다.

조선이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이후 조선시대에 조영된 역대 왕과 왕비들의 무덤은 40여기에 이른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으로 명명되어 '원(園)' 또는 '묘(墓)'라고 불리는 다른 무덤들과 구분되었고 능 앞에는 신분과 위계에 따라¹⁶⁾ 각종 석물(石物)¹⁷⁾들을 세웠다. 석물 중 무석인은 능에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사병(私兵)의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사후 공간에도 무장한 인물상 설치를 제한¹⁸⁾하였기 때문이다.

태조 건원릉은 태종에 의해 제작되었고, 건원릉의 제도는 이후 조선의 능 제도의 기준¹⁹⁾이 된다. 태종은 산릉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조(禮曹)에 명하여 중국의 산릉을 살피게 하였으며, 예조에서는 중국의 여러 능을 보고 참고하여 심능안(審陵案)을 제작²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은 무석인의 갑주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전기 왕릉의 무석인의 갑주는 제시된 〈표 4〉²¹⁾와 같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갑옷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러한 무석인의 갑주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도(圖)에 제시된 황동두정갑, 두두미갑과 분리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구성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석인의 갑주는 양 어깨와 쇄골 부위를 보호하는 견갑(肩胛)과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보호하는 꺽갑(肱甲), 등을 보호하는 배갑(背甲), 등 아래 엉덩이를 보호하는 배상갑(背裳甲), 골반부와 대퇴부를 보호하는 상갑(裳甲), 어깨 끝부터 팔꿈치까지를 보호하는 상박갑(上膊甲), 골반의 양 옆과 옆구리를 보호하는 상상갑(上裳甲), 골반의 앞쪽을 보호하는 전상갑(前裳甲), 허벅지를 보호하는

<표 4> 조선전기 왕릉의 무석인 갑주

구분	건원릉(태조)	후릉(정종·비)	현릉(태종·비)	영릉(세종·비)	현릉(문종)
갑주 모습					
	조선왕릉석물복식, 2010, p. 17.	조선왕릉석물복식, 2010, p. 33.	조선왕릉석물복식, 2010, p. 39.	조선왕릉석물복식, 2010, p. 45.	조선왕릉석물복식, 2010, p. 51.

하상갑(下裳甲), 앞가슴을 보호하는 흉갑(胸甲)²²⁾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양은 소슬금문과 운문(雲紋), 어린문(魚鱗紋)이 시문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현전하는 조선시대 갑주유물은 거의 상·하의가 일체된 포형(袍形)임에 반해 조선왕릉 무석인의 갑주는 분리된 형태이고 장식성이 짙다. 이에 유물로 전하는 포형 갑주는 전투용으로, 무석인의 갑주는 중국의 제도에 따라 제작되어 상징적으로만 쓰여 졌던 의례용 갑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²³⁾이다.

Ⅲ. TV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갑주의 재현양상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변란들이 일어났고, 특히 2차례에 걸쳐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의 난²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란으로 기록된다. 태조시대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정예한 기병이 꼭 차 있었고, 여러 왕자들[君]과 추상(樞相), 대소내관(大小內官)들과 아래로 내노(內奴)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가졌다²⁵⁾는 기록은 대규모 정변에 의한 군사 병력의 동원에 의해 갑주를 착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방간의 군사가 모두 갑옷을 입고, 정안공이 부득이 종 소근을 불러 갑옷을 내어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²⁶⁾는 기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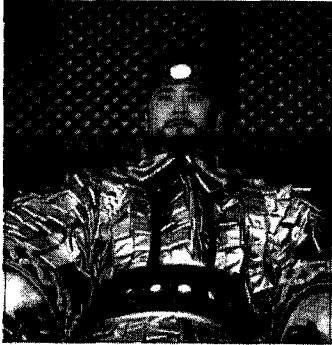
알 수 있듯이 군복으로 갑주의 착용은 필수적이었다.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왕자의 난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투장면으로 동일인물인 이방원과 이방간, 민무구, 민무질, 이숙번을 중심으로 드라마 내용이 전개된다. 이에 왕자의 난을 통해 중요인물들이 착용하였던 갑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의 눈물²⁷⁾ 작품 개요 및 갑주

드라마 용의 눈물은 월탄 박종화의 소설 『세종대왕』을 원작으로 조선 왕조가 창건되는 과정과 태종의 활약,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드라마 내용의 전개는 수백 년 복은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된 치열한 투쟁으로 그 안에 삶과 죽음, 충성과 반역, 그리고 새 왕조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처절한 갈등 등 극적인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²⁸⁾ 이러한 극적 요소는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전통 의상에 힘입어 기존의 사극인식에 대한 판도를 뒤집을 만큼 인기리에 방영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왕자들의 왕위 계승권과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왕자의 난은 51회, 52회, 71회, 72회에 재현되었으며, 군복을 착용한 등장인물의 갑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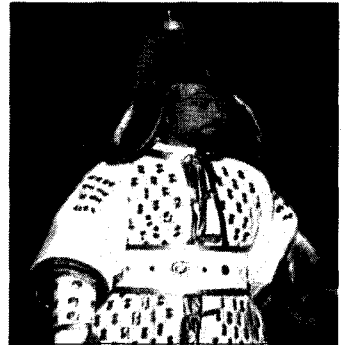
왕자인 이방원은 왕족으로 갑주는 제시된 <그림 2>²⁹⁾와 같이 투구 대신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있다. 수은갑의 변형으로 보이는 은색 갑옷은 정사각



〈그림 2〉 이방원 갑주
용의 눈물, 52회 캡처



〈그림 3〉 이방간 갑주
용의 눈물, 52회 캡처



〈그림 4〉 민무구 갑주
용의 눈물, 52회 캡처



〈그림 5〉 민무질 갑주
용의 눈물, 52회 캡처



〈그림 6〉 이숙번 갑주
용의 눈물, 71회 캡처



〈그림 7〉 병사들 갑주
용의 눈물, 52회 캡처

형의 모양을 만들어 하나하나 풍성하게 달아 입체감을 살려 실제 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색감의 사용과 금색 장식은 높은 신분임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왕자인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3〉³⁰⁾과 같이 돌레가 없는 붉은색 투구로 갑투에는 햇빛을 가리는 차양과 이마를 보호하는 이마 가리개, 은색과 금색 두정이 있는 드림이 달려 있고 정수리에는 붉은색 상모장식이 있다. 갑옷은 은색과 금색 두정이 있는 조선전기 두두미갑을 충실히 재현한 것으로, 갑신과 갑상, 골미와 대로 구성된 유사형이다. 투구와 갑옷의 가장자리에 밝은 황갈색의 털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이방원의 처남인 민무구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4〉³¹⁾와 같이 돌레가 없는 붉은색 투구로 갑투에는 차양과 이마 가리개, 금색 두정이 박힌 드림이 부착되어 있고 정수리에는 붉은색 상모가 달려 있다. 포형(袍形)의 흰색 갑옷은 전체적으로 금색 두정을 촘촘히 박은 두정갑으로 가장자리에는 금색 선을 둘러 박아 정갈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추구했다.

민무구의 동생 민무질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5〉³²⁾와 같이 색상만 다를 뿐 민무구의 투구와 유사하다. 갑옷은 포형의 두정갑으로 방령의 깃이 달려 있다. 자칫 무난해 보일 수 있는 검정색 투구와 파란색 갑옷에 화려한 금색 두정과 금색 선을 배색하여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었다.

이방원의 심복인 이숙번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6〉³³⁾과 같이 돌레가 있는 붉은색 투구로 갑투와 드

림, 정수리의 상모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형의 붉은색 두정갑에 큰 금색 두정을 박아 도전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병사들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7>³⁴⁾과 같이 연한 갈색으로 된 투구로 갑투에 드림과 차양만이 부착되어 있다.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투구에 자주색 띠를 둘러 반란군임을 표시하고 있다. 포형의 황토색 갑옷은 작은 두정을 듬성듬성하게 박은 두정갑이다.

2. 대왕세종³⁵⁾ 작품 개요 및 갑주

정통사극을 지향하는 KBS 사극은 재미나 코믹함보다는 되도록 역사적인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에 충실하였다. 하지만 2008년 방영된 드라마 대왕세종은 시대적 변화와 트렌드에 맞추어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자 하였고, 대사톤이나 말투에서 오는 새로운 감각은 의상에서 그 빛을 발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이라는 인물을 통해 탁월한 인재등용, 미래지향적인 사고, 문화와 산업을 이끈 리더쉽 등이 집중 조명되었으며,³⁶⁾ 극 중 시대적 배경은 태종시대에서 세종시대까지이다. 왕자의 난은 1회와 29회에서 재현되었으며, 등장인물에 따른 갑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자인 이방원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8>³⁷⁾과 같이 투구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갑옷을 입고 있다. 갑옷은 가죽소재의 찰갑으로 갑신과 갑상, 골미와 대로 구성된 유상형이다. 소매에는 육각형의 가죽 찰편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선명한 초록색의 갑옷은 안에 입은 붉은색 포, 바지와 보색대비를 이뤄 강렬한 느낌을 주며, 화려한 호피무늬가 있는 대(帶)를 사용하여 용맹스러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왕자인 이방간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9>³⁸⁾와 같이 머리에는 검정색 띠를 두르고 붉은색을 가미한 포형의 두정갑을 입고 있는데, 금색 두정과 선을 둘러 높은 신분임을 암시하고 있다. 안에 붉은색 포와 바지를 입은 이방원과 달리 안에 파란색으로 된 포와 바지를 입어, 붉은색과 파란색의 색상대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방원의 처남인 민무구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10>³⁹⁾과 같이 머리에는 검정색 띠를 두르고 포형으로

된 찰갑을 입고 있다. 갑옷의 색상은 회색으로 단순하고 모호하면서도 특성 없는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회색만이 가지고 있는 미묘함과 질감으로 인해 고풍스러움⁴⁰⁾을 느끼게 한다.

민무구의 동생인 민무질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11>⁴¹⁾과 같이 형 민무구와 같이 머리에는 검은색 띠와 포형 찰갑을 입고 있다. 갑옷의 색상은 가죽느낌을 잘 살린 어두운 갈색으로 자연의 색감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추구하고 있다.

이방원의 심복인 이숙번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12>⁴²⁾와 같이 민무구와 민무질과 유사한 차림으로 갑옷의 색상만을 달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튀지 않는 연한 갈색을 선택하여 녹색, 회색, 갈색 등으로 구성된 다른 이들의 찰갑과 잘 어울린다.

병사들의 갑주는 제시된 <그림 13>⁴³⁾과 같이 흑색 투구를 착용하고 있다. 갑옷은 별다른 장식이 없이 두정만이 박힌 두정갑을 입고 있는데, 붉은색과 검정색 외에도 현대적 색감이 반영된 어두운 파스텔 계열의 카키색, 혹은 탁한 파란색을 사용하여 차별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상과 같이 이방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뤄진 왕자의 난에서 중요하게 착용되었던 갑주는 사극의 상으로서, 등장인물에 따라 갑주의 종류와 색, 장식 등을 달리 하여 재현하였다. 중요인물들의 갑주는 색과 소재에 의한 적절한 화려함으로 기품 있게 표현되었고, 병사들의 갑주는 색의 표현에 있어 튀지 않는 계열의 색을 선택하여 단순함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갑주는 극 중 신분구별을 물론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IV. TV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갑주의 특성

사극 드라마 제작시 중요한 요소인 전통복식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대성이 반영된다. 때문에 정확한 시대성의 이해를 위하여 철저한 고증에 의한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⁴⁴⁾ 하지만, 실제로는 고증적인 측면 이외에도 제작진의 해석의 여지(餘地), 제작비,



〈그림 8〉 이방원 갑주
대왕세종, 1회 캡처



〈그림 9〉 이방간 갑주
대왕세종, 1회 캡처



〈그림 10〉 민무구 갑주
대왕세종, 1회 캡처



〈그림 11〉 민무질 갑주
대왕세종, 1회 캡처



〈그림 12〉 이숙번 갑주
대왕세종, 1회 캡처



〈그림 13〉 병사들 갑주
대왕세종, 29회 캡처

시간적 제약, 소재의 부족, 시청률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제작됨에 따라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보다 다각적인 시각을 토대로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착용되었던 갑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고증에 따른 재현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제(機制)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복식고증은 매우 중요한 영상드라마의 구성요소이다.

우선 드라마에서 착용되었던 갑주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착용되었던 갑주

의 종류는 찰갑에 해당하는 수은갑과 두정갑, 두두미갑이며,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착용되었던 갑주의 종류는 찰갑에 해당하는 피갑과 두정갑이다. 조선전기 갑주는 찰갑(札甲)에 해당하는 수은갑, 유엽갑, 피갑, 지갑과 철환(鐵環)을 이용한 쇠자갑 및 철환과 철판을 연결한 경번갑, 그리고 두정(頭釘)을 박은 두정갑과 두두미갑이 존재하였음이 문헌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착용되었던 갑주는 조선전기에 존재하였던 갑주양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전기 찰갑은 미늘의 재료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철판과 가죽, 종이로 만든 미늘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을 끼워 미늘끼리 종횡으로 연결한 구조로 중앙 앞에서 합입한다. 이 중

철로 미늘을 만들고 수은을 바른 후 미늘들을 가죽으로 엮어 만든 갑옷인 수은갑은 착용 시 밝게 빛나는 광채를 뽐어낸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재현된 수은갑은 철 대신 은색 비닐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소재는 달리 하였지만, 광택 있는 은색의 색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도(圖)에 제시된 포형의 구조를 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고증성을 엿볼 수 있다.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재현된 찰갑은 가죽으로 만든 포형의 피갑으로 형태나 소재면에서 고증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포형으로 제작된 두정갑은 다른 갑옷에 비해 높은 신분에서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게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하나 만들어 연결해야하는 찰갑에 비해 비교적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중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착용되었던 두정갑은 앞에서 여미는 전통방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붉은색과 파란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고증성을 보인다.

자료로 분석한 조선전기 두두미갑은 갑신(甲身)과 대퇴부를 보호하는 갑군(甲裙), 성기를 보호하기 위한 골미(鵬尾)가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부분을 보호하는 호액(護腋)으로 구성된 유상형(襦裳形) 갑옷으로 갑옷의 가장자리에 털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두두미갑은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비단 대신 붉은색과 파란색 용을 사용하여, 소재의 차이는 보이나 형태나 색상면에서 고증에 가깝게 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고증의 한계성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갑주 유물들은 문헌에 기록된 갑주가 현실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사료이다. 다른 사료로는 알기 어려운 규격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색채 및 재료와 제작방법, 세부 형태와 세부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실증적인 재현 및 고증작업에 필수적인 사료⁴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갑주유물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에서는 현전하는 조선 중, 후기의 갑주유물이 고증작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극 드라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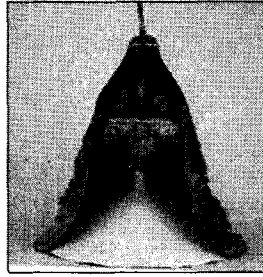
착용되는 갑주는 사료가 불충분하다거나 유물의 부재, 혹은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해석 등의 이유로 고증과는 무관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조선전기 문헌인 『세종실록(世宗實錄)』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도(圖)를 통해 볼 때 침주는 하단에 침을 더하고 위쪽의 정수리부분에는 상모를 풍성하게 늘어뜨리며 끈을 단 부분에도 장식 이 조금 더 달려 있어 높은 계급에서 착용했던 투구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원주는 감투만으로 단출하게 제작된 15세기 후반 하급 군졸들의 투구였다.⁴⁶⁾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의 투구에는 햇빛을 가리는 차양과 이마가리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감투의 하단에 3개의 드림이 달려있어 조선전기 투구 양식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투구는 제시된 <그림 14><그림 15><그림 16>⁴⁷⁾과 같이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까지 장수급에게 쓰여진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투구양식으로 이 양식이 들어오면서 침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조선전기 침주형-원주형의 상하구도가 드림분리형-침주형으로 바뀌게 된다.⁴⁸⁾ 따라서 조선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조선 후기 투구를 착용함으로써 계급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잘못 재현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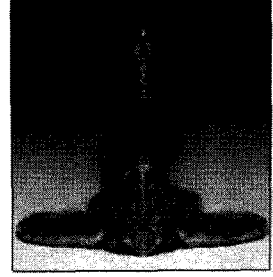
또한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착용되었던 두정갑의 경우에도 현전하는 조선시대 갑주유물과 두정의 시정방식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제시된 <그림 17>⁴⁹⁾은 18세기 갑주유물로 작은 두정이 2개씩 연이어 붙어 있는 두정이 사선꼴로 시정되어 다른 갑옷에 비해 특이⁵⁰⁾하다. 이러한 두정의 시정방식은 극 중 민무구가 착용한 두정갑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극 중 민무질과 이숙번이 착용한 두정갑은 작은 두정과 큰 두정이 혼합되어 시정되었으며, 앞길과 뒷길의 하단에 큰 두정이 좌우로 박혀있다. 이 또한 제시된 <그림 18>⁵¹⁾과 같이 18세기 갑옷유물에서 확인된다. 제시된 <그림 19>⁵²⁾는 17세기 갑옷유물로 가슴 중앙에서 합입하는 포형이나 길이가 짧고 소매도 짧다. 두정은 앞 뒤 횡으로 9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아래쪽에 2줄을 더 시정⁵³⁾하였는데, 극 중 병사들의 두정갑과 유사함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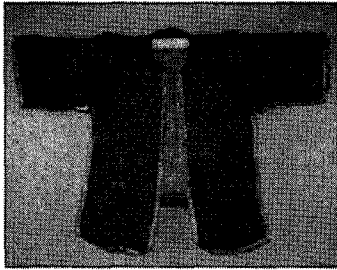
〈그림 14〉 鳳凰帥字文頭釘靑
한국의 갑주, 1987, p.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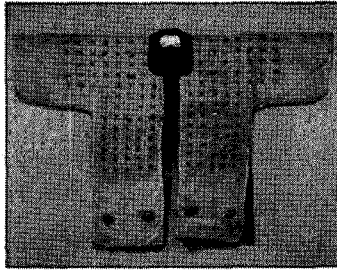
〈그림 15〉 李鳳祥將軍龍鳳
副元帥文頭釘靑
한국의 갑주, 1987, p.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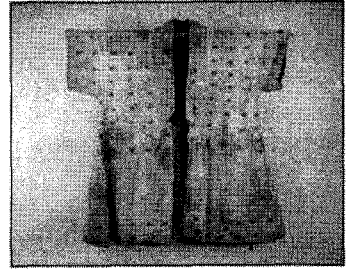
〈그림 16〉 龍鳳文靑
한국의 갑주, 1987, p. 229.



〈그림 17〉 鳳凰帥字文頭釘甲
한국의 갑주, 1987, p. 216.



〈그림 18〉 皮甲
한국의 갑주, 1987, p. 215.



〈그림 19〉 趙必達將軍頭釘甲
한국의 갑주, 1987, p. 193.

3. 기능성의 추구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현대에 들어와 갑주가 제작됨에 따라 고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기능적 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활동성과 편리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주의 구성에 있어서는 밀접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을 제외하고 모든 등장인물이 착용하였던 중요한 소품이었던 투구는 철 투구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 소재인 플라스틱과 금속, 직물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렇게 갑주의 무게를 감소시켜 기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투구뿐만 아니라 갑옷에서도 나타났다. 두정갑은 제시된 〈그림 20〉⁵⁴⁾과 같이 안쪽의 미늘을 생략하여 갑옷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숨을 두어 두툼하게 제작하여 착용감과 볼륨감을 높였다. 두두미갑은 제시된

〈그림 21〉⁵⁵⁾과 같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도(圖)와 유사하나 백은과 황동두정은 볼 수 없다. 갑군(甲裙)과 골미(鵝尾)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는 봉제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형태의 변형은 착용하였을 때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변형으로, 기능성 추구 측면에서 착용의 용이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두미갑 역시 두정갑과 동일한 봉제기법으로 보이지 않는 안쪽의 미늘을 과감하게 생략하여 무게를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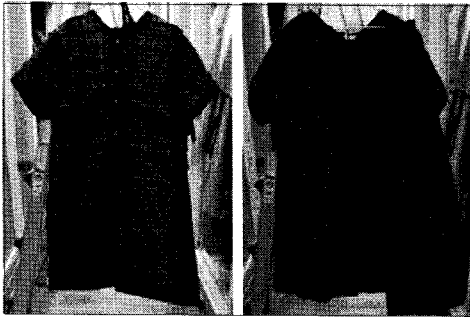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중요인물들이 착용하였던 피갑의 착장방식은 앞 중앙에서 끈으로 합입하는 구조 대신 제시된 〈그림 22〉⁵⁶⁾와 같이 앞 중앙에는 단추를 장식용으로 달고, 실제 여밈은 뒤 중심에서 벨크로를 부착하여 튼튼하게 여민 후 끈으로 묶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착장방식의 변화는 현대적 여밈 방식인 단추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느낌과 새로운 이미지



〈그림 20〉 두정갑
저자촬영, KBS
사극의상실, 20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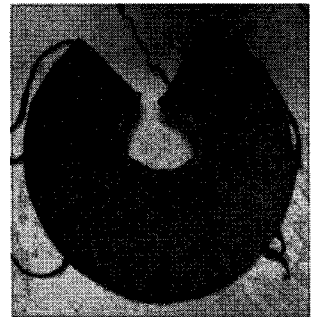
〈그림 21〉 두두미갑
저자촬영,
KBS 사극의상실, 2010. 7.



〈그림 22〉 피갑
저자촬영, KBS 사극의상실, 2010. 7.



〈그림 23〉 두정갑
저자촬영, KBS
사극의상실, 2010. 7.



〈그림 24〉 목가리개
저자촬영,
KBS 사극의상실, 2010. 7.

를 표현함과 동시에 벨크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탈착의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두정갑은 제시된 〈그림 23〉⁵⁷⁾과 같이 안쪽의 미늘을 제거하여 무게를 감소시켜 기능성을 추구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갑옷의 부속물인 목가리개는 제시된 〈그림 24〉⁵⁸⁾와 같이 목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목가리개를 착용하여 안에 입는 저고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4. 연출성의 가미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고중에 충실하게 제작을 하다보면 한 화면에 한가지의 색상과 형태만이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아무리 정통 궁중사극이라 하여도 시각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TV 화면의 영상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⁵⁹⁾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출성이 요구된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낮은 신분에서 착용한 투구는 단색으로 심플하게 제작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높은 신분에서 착용한 강렬한 붉은색의 투구는 화려한 금색 장식을 더해 화려함을 배가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사극의상실에 배치된 수은갑은 직선으로 된 정사각형의 미늘의 위아래를 고정시키지 않고 윗부분만 봉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봉제기법은 본인의 몸보다 퍼져나가는 과장된 실루엣의 연출을 통해 풍성하게 구성되어 위풍당당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의 색상 조화와 액션연기에 의해 나타나는 율동성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중요인물들은 투구대신 머리

〈표 5〉 TV 사극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 재현된 갑주의 특성

특성	용의 눈물	대왕세종
고증성	-재현된 수은갑과 두정갑, 두두미갑은 조선전기 갑옷양식에 해당 -수은갑을 은색으로 동일하게 표현 -앞에서 여미는 전통방식과 포형의 구조 -두정갑은 붉은색과 파란색이 사용 -두두미갑을 고증에 가깝게 재현	-재현된 피갑과 두정갑은 조선전기의 갑옷양식에 해당 -두정갑은 포형의 구조 -가족으로 제작된 피갑은 포형의 구조로 형태와 소재면에서 고증에 가깝게 표현
한계성	-조선후기 투구유물의 형태가 반영됨으로서 조선전기 투구 양식과 차이 -두정갑의 두정시정방식이 조선후기 갑옷유물의 두정시정방식과 유사	-조선후기 투구유물의 형태가 반영됨으로서 조선전기 투구 양식과 차이
기능성	-투구는 무거운 철 소재를 대신하여 현대적 소재인 플라스틱, 금속, 직물 사용 -두정갑과 두두미갑은 안쪽의 미늘을 생략하여 갑옷의 무게를 감소 -두두미갑은 갑상과 골미를 하나로 연결하는 부분적인 변형을 통해 착용의 용이성 확보	-두정갑은 안쪽의 미늘을 생략하여 무게를 감소 -피갑과 두정갑의 착용방식은 현대적 여미 방식인 단추와 벨크로를 사용하여 탈착의 용이성 확보 -목가리개는 안의 옷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착용
연출성	-수은갑은 미늘의 윗부분만 봉제하는 봉제기법으로 풍성하고 과장된 실루엣의 연출 -투구와 갑옷은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의 색상 조화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연출	-피갑은 가죽의 질감을 살린 갈색과 베이지, 회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 -두정갑은 현대적 유행을 반영한 파스텔 계열의 색감을 적극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을 연출

에 띠를 착용하였다. 반면 병사들은 어두운 계열의 밤색과 검정색의 투구를 착용하여 눈에 띄지 않는 정돈된 모습을 연출하였다. 칼갑의 종류인 피갑은 가족의 질감을 살린 갈색과 베이지 계열과 회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이 표현되었다. 두정갑은 현대적 유행을 반영한 파스텔 계열의 색감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사용된 색상은 원색보다 바랜 듯한 느낌의 청색, 카키색 등으로 다채로운 색채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화면상으로 표현된 다채로운 색감의 연출은 전통적 색채에 현대적 색채배색으로 인해 고증에 충실한 연출 뿐 아니라 현대적 감각의 가미를 통해 효과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왕자의 난을 이끄는 이방원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단독적인 색상의 사용과 과장된 실루엣으로 연출된 갑주의 착용 모습으로 인해 자신감 넘치는 강인한 권력자의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승리로 이끌고 권력을 쥐게 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드라마에 나타난 사극 갑주는 단순히

배우들의 몸만을 가리는 소도구가 아닌, 극 중 인물의 성격, 개성, 신분, 사회계층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체계⁶⁰⁾로서 다른 소품들과 관계를 가지며 드라마 전개의 암시와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출성을 표현하였다.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재현된 갑주의 특성에 관한 고찰 결과를 고증성, 한계성, 기능성, 연출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역사적 인물이나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되는 사극 드라마 가운데 시대적 배경이 조선전기라는 공통점을 지닌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 착용되었던 갑주를 중심으로 시대가 반영된 갑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고증에 충실하면서도, 사극 드라마의 특성상 시대적 변화와 화면의 영상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부는 유행성

과 심미성, 기능성 추구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변형을 가져왔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고증 복식으로 재현되었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수은갑은 은색의 색감과 포형(袍形)의 구조를 재현하였고, 포형의 두정갑과 유사형의 두두미갑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제작됨으로서 형태와 색상면에서 고증성을 보였다.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피갑과 두정갑은 포형으로 제작되어 고증성을 추구하였다.

둘째,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사료가 불충분하거나 유물의 부재, 혹은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해석 등의 이유로 고증과는 무관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드라마 용의 눈물과 대왕세종에서는 투구의 형태와 두정갑의 두정시정방식 등에서 현전하는 조선후기의 갑주유물이 고증작업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고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부는 봉제기법상의 부분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기능성을 추구하였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갑주는 철 소재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 소재인 플라스틱과 금속, 직물을 적극 활용하고, 갑옷의 안쪽 미늘을 제거하였다.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갑주는 갑옷의 안쪽 미늘을 제거하여 무게를 감소시키고, 현대적 여밈 방식인 단추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느낌과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벨크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탈착의 용이성을 확보하여 기능성이 부가되었다.

넷째,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는 화면의 영상미와 인물 설정에 따른 연출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연출성이 표현되었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갑주는 과장된 실루엣의 연출을 통해 풍성하게 구성되어 위풍당당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또한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의 색상 조화와 액션연기에 의해 나타나는 움직임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갑주는 현대적 유행을 반영한 파스텔 계열의 색감을 적극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사극 드라마에서 착용되는 갑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이론적 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상호보완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복식학계의 관심 속에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원혜은 (2003). *사극 드라마 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
- 최원경, 김혜리, 조윤경 (2009). *퓨전사극드라마 주몽과 태왕사신기에 나타난 전투복 스타일링 비교*. *복식*, 59(5).
조미숙, 김은정 (2010). TV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에 표현된 갑주유형 분석-고구려시대를 중심으로-. *복식*, 60(5).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1*.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p. 285.
-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1.
- 위의 논문*, pp. 84-85.
- 위의 논문*, pp. 85-97.
- 김정자 (1998). *한국 군복의 변천사 연구*. 서울: 민속원, p. 108.
- 장경숙 (2005).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6.
- 장경숙 (2000). 문헌과 고고학자료에 보이는 한국의 고대갑주. *영남고고학*, 27, p. 43.
- 皇甫仁, 金宗瑞, 鄭麟趾 외 (1454). *世宗實錄* 卷133 五禮 軍禮 序禮 兵器 5集 357面. 國史編纂委員會 編 (1970). *朝鮮王朝實錄 5: 世宗實錄4*.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p. 357. “有簷曰簷青 無簷曰圓青. 以鐵爲札 灌以水銀 用靸韋編成曰水銀甲. 用烟鹿皮編成 黑漆曰柳葉甲. 以生猪皮爲札 用烟鹿皮編成曰皮甲. 以鐵絲作小環 相貫曰鑲子甲. 鐵札及鐵環相間以綴曰鏡幡甲. 摺紙爲札 以鹿皮編成 黑漆曰紙甲.”
- 申叔舟 외 (1474). *國朝五禮儀* 卷4 軍禮 序禮 兵器 圖說. 허주 (1979). *國朝五禮儀*. 경문사, p. 93. “有簷曰簷青 無簷曰圓青. 有頭釘甲兩色. 其一以青綿布爲衣 編鐵札爲望 而以鐵頭釘星列釘之 其一以紅段子爲衣 裏用烟鹿皮 別作袖有紐. 以黃銅頭釘釘之 有紅黃條帶. 又有頭頭甲兩色. 其一以青段子爲衣 裏用烟鹿皮 以白銀黃銅兩色頭釘相錯釘之 有五色組帶. 其一制同 而衣用紅段子 帶用紅廣條.”
- 박가영. *앞의 논문*, p. 70.
- 李德懋 외 (1790). *武藝圖譜通志*. 學文閣 刊 (1970). *武藝圖譜通志* 신한서림, p. 604.
- 김정자. *앞의 책*, p. 209.
- 박가영. *앞의 논문*, p. 89.
- 이정선 (2008). *조선 전기 왕릉 석인(石人)·석수(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17) 석물(石物)이란 황제나 왕의 능 또는 일반 묘 구역 내에 조각하여 세워 놓은 석인(石人), 석수(石獸), 석주(石柱), 석등(石燈), 상석(床石) 등을 일컫는다. *위의 논문*, p. 1.
- 18) 묘에는 음성적으로 무석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묘의 무석인은 능의 무석인처럼 장대하지 않으며 세부 묘사도 충실하지 않다. 즉 무석인은 능의 성격을 규명하는 요소로 조선시대 유일하게 병사를 소유한 왕실의 기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전나나 (2009). *조선왕릉 무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19) *위의 논문*, p. 19.
- 20)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1月 21日 甲寅, 命禮曹巡審山陵. 禮曹啓 本曹受教 春秋仲月 遣禮官巡諸山陵 仍立審陵案 藏諸本曹.
- 21) 은광준 (2010). *조선왕릉석물복식*. 서울: 민속원, pp. 17-51.
- 22) *위의 책*, p. 348.
- 23)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258. 김정자. *앞의 책*, p. 255. 전나나. *앞의 책*, p. 34.
- 24) 제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무인년 8월 25일, 방원을 비롯한 신의왕후 한씨 소생 왕자들이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반대파 세력을 살해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동복형 방원을 죽인 사건이다. 이후 조선의 세력 구조가 방원 일파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자 방원의 바로 윗형인 넷째 방간이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박포와 함께 사병을 동원하여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방원과 그의 사병들이 이를 제압하고 이 일로 방원은 세제의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박영규 (199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pp. 41-48.
- 25) *太祖實錄* 卷14, 7年 8月 己巳. 自光化門至南山 鐵騎彌滿... 自諸君樞相 大小內官 下至內奴 皆被甲帶劍.
- 26) *定宗實錄* 卷3, 2年 1月 甲午. 芳幹軍士 皆甲而奔集... 公不得已 呼奴小斤 命出甲分與諸將.
- 27) 용의 눈물은 1996년 11월 24일부터 1998년 5월 31일까지 KBS1에서 총 159회 방영되었다.
- 28) 정두희, 김아네스, 최선희, 이장우 (2004). *장희빈, 사극의 배반*. 서울: 소나무, p. 31.
- 29) 자료캡처일 2010. 6. 12, 자료출처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DVD 52회.
- 30) 자료캡처일 2010. 6. 12, 자료출처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DVD 52회.
- 31) 자료캡처일 2010. 6. 12, 자료출처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DVD 52회.
- 32) 자료캡처일 2010. 6. 12, 자료출처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DVD 52회.
- 33) 자료캡처일 2010. 6. 20, 자료출처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DVD 71회.
- 34) 자료캡처일 2010. 6. 12, 자료출처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DVD 52회.
- 35) 대왕세종은 2008년 1월 5일부터 2008년 11월 16일까지 KBS2에서 총 86회 방영되었다.
- 36) 강은영 (2008. 1. 9). 세종의 리더십, 혼란 잠재우다. 스포츠한국. 자료검색일 2010. 6. 21. 자료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801/h2008010907350484220.htm>
- 37) 자료캡처일 2010. 6. 20, 자료출처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DVD 1회.
- 38) 자료캡처일 2010. 6. 20, 자료출처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DVD 1회.
- 39) 자료캡처일 2010. 6. 20, 자료출처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DVD 1회.
- 40) 이재만 (2005). *한국의 색*. 서울: 일진사, p. 28.
- 41) 자료캡처일 2010. 6. 20, 자료출처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DVD 1회.
- 42) 자료캡처일 2010. 6. 20, 자료출처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DVD 1회.
- 43) 자료캡처일 2010. 6. 25, 자료출처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DVD 29회.
- 44) 조미숙 (2005). *영상물 장희빈 복식의 고증실태와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 45) 박가영. *앞의 논문*, p. 9.
- 46) *위의 논문*, p. 110.
- 47) 문화재관리국 (1987). *한국의 갑주*.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 217, p. 196, p. 229.
- 48) 박가영. *앞의 논문*, p. 111.
- 49)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216.
- 50) *위의 책*, p. 243.
- 51) *위의 책*, p. 215.
- 52) *위의 책*, p. 193.
- 53) *위의 책*, p. 107.
- 54) 저자촬영 2010. 7. 12, 자료출처 KBS 사극의상실.
- 55) 저자촬영 2010. 7. 12, 자료출처 KBS 사극의상실.
- 56) 저자촬영 2010. 7. 12, 자료출처 KBS 사극의상실.
- 57) 저자촬영 2010. 7. 12, 자료출처 KBS 사극의상실.
- 58) 저자촬영 2010. 7. 12, 자료출처 KBS 사극의상실.
- 59) 봉현숙 (1999). *TV 사극드라마 의상의 고증에 관한 연구-대왕의 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60) 김미영 (1999).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복식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